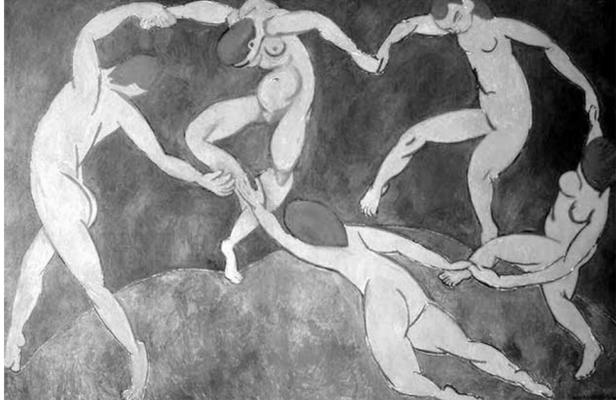


‘모나리자’가 내 손 안에 들어왔다

루브르·오르세·솔로몬 구겐하임·대림미술관 등
스마트폰 앱 서비스 ... 큐레이터들 음성 해설도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소장품인 마티스 ‘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나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등은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고 싶은 곳이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허락하지 않아 꿈만 꾸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작품해설부터 미술 지식까지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손 안의 미술관’들을 소개한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Musee du Louvre)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며,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미술관이다.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루브르 오디오 가이드’는 큐레이터들의 음성 해설과 함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등 작품 40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앱은 두가지 메뉴를 제공한다. 단계별로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길잡이 투어와 보고 싶은 작품만 골라보는 자유투어다. 단 한국어는 지원이 안된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파리에서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오르세 미술관(Les Paris d'Orsay)이다.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등 19세기 인상파 작품으로 유명하다. 앱에서는 HD화질로 180여 작품 볼 수 있다. 또 GPS 기능을 탑재해 파리 곳곳에 위치한 건축물 가이드 역할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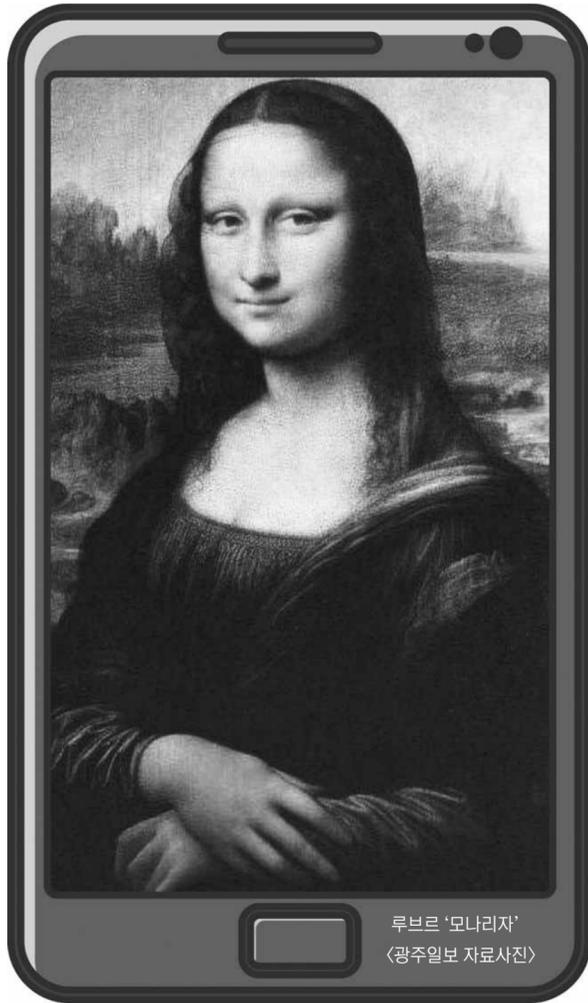
건물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뉴욕 ‘솔로몬 구겐하임(Solomon R. Guggenheim Museum)’ 미술관은 앱으로 컬렉션과 최근 열리고 있는 전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한다. 아티스트, 날짜, 장르별로 작품을 둘러볼 수 있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으로 설명 해준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에르미타주 박물관(The State Hermitage Museum)은 러시아 미술의 자존심이다. 에르미타주 박물관 앱은 고대 로마, 성화(聖畵) 등 카테고리별로 작품을 정리해 놓은 게 특징이다. 일부 콘텐츠는 유료(약 2달러)로 제공한다.

서울 대림미술관 앱은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눈길을 끈다. 시정각을 활용한 전시·작품 설명, 칼럼, 전시 일정 등을 제공한다. 또 앱에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멤버십 카드 혜택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큐레이터가 들려주는 전시 비하인드 스토리 메뉴다. 작품 설치부터 작가의 성장까지 숨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미술관 가이드 아트고 Art Go’는 런던, 파리, 뉴욕, 마드리드, 로마를 여행할 때 꼭 들려야 하는 미술관, 빼먹지 말고 관람해야 하는 작품들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첫 화면에서 파리를 선택하면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이 나온다. 이중 루브르 박물관을 누르면 10개의 추천명작과 위치, 간략한 미술관 소개를 보여준다. 런던 소더비 대학원 출신 독립큐레이터가 추천하는 서양 명작 100선도 감상할 수 있다. 미술전문 야카이브기업 ‘뮤움’에서 만든 ‘뮤움-현대미술야카이브’는 다양한 미술 정보로 꾸며졌다. 국내외 주요 갤러리를 찾기 쉽게 정리해 두었고 작가, 전시 동영상이, 리뷰, 서적 등을 소개한다. 또 시대별 미술사 콘텐츠를 통해 미술 지식을 넓힐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도 앱으로 만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루브르 ‘모나리자’
(경주일보 자료사진)

2015 문화누리카드 31일까지 사용하세요

사용 않은 금액 자동 소멸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이 ‘2015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모두 사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수혜자가 부담한 금액에 한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생활 전용복지카드다. 전용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1인당 5

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개인에게 발급된 카드는 필요에 따라 가족끼리 1매로 합산하여 사용 가능하다. 카드 충전은 농협 영업점·인터넷뱅킹을 통해 지정된 가상계좌로 연간 10만 원까지 입금해 충전할 수 있다.

잔액조회 및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문화누리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1544-3412, 062-670-791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진기 시인 두 번째 시집 ‘슬픈 지구’ 펴내

존재의 슬픔 성찰

영광 출신 강진기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슬픈 지구’(문학들·사진)를 발간했다.

첫 시집 ‘사금파리 빛 눈집자’에서 자연과 사물을 대상으로 서정의 깊이를 추구했던 시인은 이번에는 활발한 우주적 상상력으로 문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고립자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슬픔을 지구라는 생명체를 매개로 성찰한다.

무엇보다 그의 시에는 못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 가득하다. 우주적 상상력과 사랑은 생명을 해하려는 대상에 대한 분노로 전이된다. 화자의 시의식이 집약된 ‘홍시’에는 그러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내가 지구에서 포유류로 사는 동안 / 은하의 태양계를 방문하여 나를 지키



는/ 홍시 유에프 오 등불”(“홍시 중에서)

갑나무에 매달린 홍시는 화자에게 유에프로 전이된다. 이렇듯 화자는

스스로 우주이면서 그 안에 은하를 품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지구와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시인의 사유는 끝없는 우주 공간을 유영한다. 운명도 소설가는 추천의 글에서 “언어는 바다 속이 그물을 치고 원초적 인류애와 문명 비판을 끌어내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강 시인은 ‘칠산문학’으로 등단했으며 환경운동과 작품활동을 병행해왔다. 한국작가회의 영광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에 문학평론가 최원식씨

한국작가회의(작가회의) 이사장에 문학평론가 최원식(66·사진) 인하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작가회의는 지난 23일 조계사 전통 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 교수를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한 최 신임 이사장은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으로 입선,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대산문학상 등을 받았다.

최 이사장은 “엄혹한 시기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됐다”며 “40년간 훌륭한 선배들이 많았으며 그 역사를 이어받아 모



순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한국문학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노”고 밝혔다.

한편 사무총장에는 안상학(54) 시인이 선출됐다. 안 시인은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작가회의 사무처장(2007~2008),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사무처장(2008~2014)을 지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총 9권 나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에 관한 10년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총 9권이 25일 나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한 전문 연구를 담은 이 보고서는 고려 말부터 20세기까지 약 530년간 만들어진 조선왕릉 40여기의 역사·건축·미술적 가치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왕릉별 정확한 조성 시기, 시대별 능제 변화와 그 요인, 석물·정자각·재실 등 구성물의 현황과 특징, 17~19세기 이뤄진 석물의 재활용 실태 등 왕릉의 변화상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연구가 축적됐다.

또 의궤 등 고문헌을 분석해 ‘참도’



를 ‘향어로’(홍살문에서 정자각을 잇는 돌길로, 신이 가는 길을 ‘향로’, 왕이 가는 길을 ‘어로’라고 함)로 수정하는 등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용어를 바로잡았다. 연구소는 “보고서 완간으로 개별 왕릉에 대한 기초자료가 집성돼 조선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후속 연구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은 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국내산 참나무장작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남권 전지역 3루베이상 무료배송 (일부지역 제외)

절단목 쪼갬목

화목난로, 화목보일러, 장작구이, 캠핑용 등 각종 용도별 생산

주문상담 ☎ (061) 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